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2호 【루계 제25295호】 주체105 (2016) 년 5월 3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200일전투에 총돌격, 총매진하자

련속공격전을 더욱 맹렬하게 벌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련속공격전을 더욱 맹렬하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필승의 신심안고 전당, 전군, 전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속에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업소에서는 공격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당면하여 장마철에도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이 총정의 7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한 기세드높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투쟁에서 련속 공격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업소일군들은 당면한 석탄증산투쟁에 계속 힘을 넣는것과 동시에 장마철에도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예견성있는 작전을 펼치고있다. 70일전투기간 이룩된 성과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갈 불타는 열의를 안은 이곳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장마철생산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우선 각 탄광들의 갱들에서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장마철에도 석탄을 팡팡 캐낼수 있는 예비채탄장들을 넉넉히 마련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장마철기간 갱막장들의 침수를 막기 위해 뽐프증설 및 배관설치공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저탄장들에 대한 지붕공사, 갱내배수로공사 등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철저히 집행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에도 자동차에 의한 석탄운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전반적인 도로보수공사를 립체적으로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고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더 많은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갱, 소대별굴진경기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고있다. 이곳 탄부들은 련속공격전의 불길높이 뜻깊은 올해의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 만만한 투지에 넘쳐 매일 굴진계획을 14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운곡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중요대상들에 수천t의 석탄을 더 보내준 기세로 석탄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이들은 장마철에도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삭도운반능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으로 삭도바가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있다.

수동탄광에서는 강력한 돌격대를 무어 침수된 갱구역을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흥탄광과 둔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굴진에 힘을 넣으면서 장마철생산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탄차와 탄차바퀴, 뽐프날개를 비롯한 설비,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는 한편 도로보수를 비롯하여 장마철생산준비를 다그치는데 필요한 세멘트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이들은 능력이 큰 5단뽐프를 자체로 설계하고 기술준비를 끝낸데 이어 그 생산을 위한 준비사업도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리 영 민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총정의 70일전투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예비채탄장을 전망성있게 마련하여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의 정신으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돌끓는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석탄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정과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석탄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채탄장을 늘이는데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생산전망이 좋은 새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모든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도록 적극 밀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문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상반년계획을 끝낸 기세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탄부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고 착암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천차갱과 청년갱을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갱들에서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한 삼천탄광의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탄광의 갱막장마다에서 탄부들은 하루생산과제를 어길수 없는 전투명령으로 여기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며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천내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막장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돌끓는 전투장마다에 석탄증산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전력문제해결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인 전력문제해결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이미 건설해놓은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며 더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도적으로 홍주청년1호, 2호, 3호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화평군 부남청년발전소, 초산청년1호, 2호, 3호발전소, 우시1호발전소를 비롯한 백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만부하로 돌며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의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때의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로 끌어올리고있다.

도중소발전소관리국의 일군들은 발전능력이 큰 중형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지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신광철, 주명호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홍주청년1호발전소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려자기, 조속기 등 발전설비들에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고 발전설비들의 원격조종화를 완성하여 같은 물량을 가지고 종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성간군의 중형발전소로동자들과 합심하여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종전에 비해 전력생산을 1.5배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만포연하발전소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도의 백수십개에 달하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며 전력생산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운데 맞게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도에서는 이미 시작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과 함께 5개년전략수행기간 수만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홍주청년3호발전소 1호발전기조기조업을 보장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말까지 2호발전설비조립을 끝내여 전력생산을 부쩍 늘이는것과 함께 초산청년4호발전소, 전천군 창평발전소, 위원군 덕암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시, 군들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를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경쟁적으로 벌리고있다.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워 군의 전력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초산군이 앞서나가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초산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초산청년4호발전소건설을 시작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은 여러차례의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홍주청년4호발전소위치를 확정한데 이어 발전소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건설력량이 편성되고 건설기계들과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 단계별공사계획이 세워졌다.

도에서는 수력을 위주로 하는 전력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또한 질좋은 전기를 보장할수 있게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력관리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웅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물동수송에서 계속 혁신

백암철도분국에서

백암철도분국에서 수송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상반년 수송계획을 앞당겨 끝낸 분국의 수송전사들은 더 높은 수송성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관철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국에서는 청진철도국 백암주재 사령실을 거점으로 하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다.

분국에서는 당앞에 결의다진 일수송량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필요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보냄으로써 발전소를 기한전에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백암기관차대에서 전기기관차의 중, 소수리, 정비수리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실동기대수를 늘여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내줄 목재와 서부지구 탄전들에서 요구하는 동발나무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하여 상반년 중요물동수송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 《청년》1015호전기기관차 기관사 김영용동무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요구하는 중요물동수송계획을 190%로, 《청년》1008호전기기관차 기관사 리주혁동무는 동발나무수송계획을 매일 1.4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백암청년역에서는 문형기중기들에 대한 자검자수를 실속있게 하고 그 가동률을 높여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백암객화차대, 백암전철대의 로동자들도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수송성과를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백암철길대에서는 철길의 강도를 보다 높임으로써 수송성과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하였다.

유평철길대에서는 새로 이설한 굴송—천수역철길에 력량을 집중하고 보수전투를 벌려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세포등판에 《애국풀》포전이 펼쳐졌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투쟁으로 들끓는 세포등판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당의 뜻을 받들고 축산업풍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이 모판에서 키운 《애국풀》모를 수십정보의 포전에 옮겨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려는 건설자들의 애국충정과 드높은 열의에 의해 세포등판에 말그대로 《애국풀》바다가 펼쳐지게 될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집짐승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16호농장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먹이작물을 몸소 《애국풀》로 명명해주시고 《애국풀》을 전국도처에 널리 퍼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은정속에서 세포등판에 《애국풀》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애국풀》은 먹이작물에 대한 기존관념을 완전히 바꾸어놓은것으로서 오리새, 자주꽃자리풀과 같은 먹이풀보다 정보당 수확량이 몇배로 높으며 한해에 4—6회 수확할수 있다. 《애국풀》은 조단백질함량이 많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충분히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소, 양, 염소, 토끼와 같은 풀먹는집짐승들만이 아니라 가금류, 돼지 등의 집짐승들에게도 좋은 먹이로 된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의 하나인 먹이문제를 해결하여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대회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수십정보의 포전에 《애국풀》모를 옮겨심는 생산돌격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세포등판에서 처음으로 되는 넓은 면적에서의 《애국풀》재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면 다음해에는 올해보다 수십배나 더 많은 면적에 심을 《애국풀》종자를 마련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그 과정에 세포지구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애국풀》재배경험을 쌓을수 있다. 이렇게 많은 종자를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애국풀》생산을 계속 늘이면 이미 조성한 풀판에서 풀먹는집짐승들의 여름철방목을 충분히 보장하는것과 함께 겨울철먹이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여 축산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다.

일군들은 세포지구에 《애국풀》을 널리 퍼칠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휘황한 앞날을 확고히 내다보면서 적기에 모를 포전에 빨리 옮겨심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하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포전에서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였다. 이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밑에 돌격대원들에게 모를 옮겨심기 며칠전에 박막을 벗겨 대기온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며 모일수가 4매이상 될 때 옮겨심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알려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모든 건설자들이 《애국풀》재배는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로 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조선인민군 강신득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앞장에서 본보기가 되어 나아갔다. 오직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치는 심장마다에 당대회결정을 쪼아박고 산악같이 일떠선 이들은 토양의 산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갈이를 한 포전에 이랑짓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또한 정보당 수십t의 유기질비료를 내는 등 포전준비를 빈틈없이 한데 기초하여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힘있게 발휘하면서 여러 정보에 《애국풀》모옮겨심기를 먼저 끝내는 위훈을 떨쳤다.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각 도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 《애국풀》모옮겨심기를 적기에 와닥닥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를 기세차게 벌렸다.

모든 단위에서 배수로치기를 비롯하여 포전정리를 규모있게 하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 이랑식과 두둑식으로 《애국풀》을 재배할수 있도록 포전준비를 잘하고 모옮겨심기에 들어갔다.

《〈애국풀〉을 대대적으로 심자!》라는 당의 구호가 새겨진 직관물을 포전에 높이 세운 이들은 모판에서 키운 모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정히 뜨는 공정에서부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포전까지의 거리가 먼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원인으로 모를 인차 옮길수 없는 경우 모가 마르지 않도록 진흙물에 담그었다 심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이들은 이랑마다 줄을 늘이고 포기사이거리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구멍이를 한 다음 유기질비료와 뇨소비료를 주고 모를 놓는 모든 공정수행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치였다. 또한 《애국풀》포기마다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 뿌리목부위까지 묻고 꼼꼼히 다져주면서 정열을 쏟아부었다. 이와 함께 양수기준비를 비롯한 가물극복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웠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 모옮겨심기를 다그치온 건설자들은 《애국풀》이 무성한 숲을 이룬 세포등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을 꿈결에도 그려보면서 비배관리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알심있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새로운 착암정대생산공정 확립, 생산성과 확대

구장탄광기계공장에서

구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경제적실리가 철저히 보장된 새로운 착암정대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종전보다 전기와 석탄, 자재를 절약하면서 시간당 생산성이 높은 착암정대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탄광부문에서 요구되는 착암정대를 국산화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구장탄광기계공장에 새로운 착암정대생산공정을 확립하는것을 70일전투의 중요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기술적지도와 조건보장을 적극 따라세웠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는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하지 못하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압출방법에 의한 착암정대생산공정을 꾸리고 그 생산기술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정대생산을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종전의 생산방식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고탄소강을 공장자체로 생산하여 압출방법으로 착암정대를 생산한것은 국산화의 큰걸음이였다. 하지만 주물품을 2차의 용해방법으로 만들고 생산기술공정이 복잡하다보니 전력소비가 많을뿐아니라 실수률이 높지 못해 생산원가가 높았다. 또한 정대생산의 마감단계인 정대의 물구멍을 내는데 리용하는 속심재료에 한해서도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있었다.

지배인 김성국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기능공들은 당의 뜻대로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경제적실리에 맞게 종전생산공정을 혁신할 비약의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2차에 걸쳐 진행하던 용해공정을 단번용해로 전환하며 가공, 단조 등의 복잡한 생산기술공정을 단축하기 위한 창조적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다시금 새긴 이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 진입하여 더욱 기세드높이 공격속도를 높여나갔다.

이들의 이악한 노력에 의해 한차례의 용해공정을 거쳐 고탄소강주물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도 한번의 프레스공정으로 지난 시기의 단조, 소재가공, 구멍뚫기공정들을 대신하는 기술공정이 확립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값비싼 속심재료를 대신하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리였다. 련관부문의 기계공장기술자들과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이들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토상흑연으로 종전의 속심재료를 대신할수 있도록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적실리가 철저히 보장된 새로운 정대생산공정을 확립한 공장에서는 련이어 많은 량의 정대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입산 착암정대에 비해 훨씬 값싼 이 공장의 착암정대를 굴진작업에 리용해본 탄부들은 종전것보다 정대의 외면이 고르로울뿐아니라 다른 나라의것보다도 훨씬 든든하고 수명이 오래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착암정대생산을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결정관철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탄광들에 국산화된 우리의 정대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전투원호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안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혁명의 길에 바쳐진 고귀한 한생

리보익녀사의 탄생 140돐을 맞으며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나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애국의 넋이 살아숨쉬고 불멸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얼마전 우리는 모진 가난과 고역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켜 굳세게 사신 열렬한 애국자 리보익녀사의 탄생 140돐을 맞으며 오류혁명사적지를 찾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할머니가 품고있던 소박하나 간절한 꿈은 나라의 독립이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며 그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뒤바라지를 성실하게 해주는것이 할머니의 일이고 락이였습니다.》

우리가 오류리소재지마을을 지나 나지막한 둔덕에 오르니 정갈하게 꾸려진 혁명사적지가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농가였다.

우리는 사적지의 교양마당에서 이곳 강사 리광희동무를 만났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녀사께서 탄생하신 추녀낮은 초가집으로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혁명사적표식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리보익녀사께서 1876년 5월 31일 이 집에서 탄생하시였으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집에 자주 오시여 청소년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비문에 씌여진 글줄을 한자한자 새겨가는 우리의 가슴에 리보익녀사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초가집은 몇㎡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단칸방과 부엌으로 되어있었다. 방으로 드나드는 문조차 변변한 어른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만큼 낮았다.

이 좁은 단칸방에서 리보익녀사의 다섯식구가 생활하였는데 방이 너무 좁아 포그리고 자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이처럼 눈물겨운 생활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리보익녀사께서는 1880년대 말경에 만경대로 가게 되시였다.

만경대에 시집을 오시여서도 가난한 생활은 여전하였다. 후날 식솔많은 집안의 큰살림을 맡아안으신 리보익녀사께서는 가정생활이 곤난하였지만 자제분들과 손자분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였다.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한 가정을 돌보자고 해도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수 있었는가.

자손들에 대한 리보익녀사의 사랑은 극진하였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 뜨거운 정이였고 손길이였다.

그처럼 고결한 뜻을 지니시였기에 리보익녀사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들과 손자분들을 혁명의 길로 서슴없이 떠나보내실수 있었고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실수 있었다.

리보익녀사께서 먼길을 걸으시여 무송의 양지촌에 있는 김형직선생님의 묘소를 찾으신것은 주체15(1926)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해였다.

리보익녀사께서 무송의 양지촌에 있는 김형직선생님의 묘소를 찾으시였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으랴.

하지만 리보익녀사께서는 절망하거나 락심하지 않으시였다.

그날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성주야,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있던 짐을 네가 메야겠구나.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잊지 못하시며 자신께서는 할머님의 그 말씀에서 큰 충동을 받았다고, 만일 그때 할머니가 조선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할 생각이나 하라고 하였더라면 나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사람값지 않은자들에게는 추상같이 무서운것,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것이 바로 리보익녀사의 성미이고 기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순공작》사건은 리보익녀사의 강의한 신념과 굳은 절개를 보여주는 전설같은 이야기로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일제는 리보익녀사께 여러차례 《귀순공작》에 응하라고 설교도 하고 강제로 끌어내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1년가까이 시간도의 산악지방으로, 그후에는 만주벌판으로 끌고다니였다.

이때에도 리보익녀사께서는 힘들어도 내 손자가 싸우고있는 산천을 보니 기운이 솟는다고 하시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년로한 몸으로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혁명일가의 존엄과 기개를 조금도 굽히지 않으신 강의한분이시기에 일제의 강요로 다시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항일유격대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시면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라고 기세를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의 강직한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기에 일제가 할머님까지 만주의 실한풍속에 끌어내였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사사로운 인정에 묻히신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을 굳히시며 원쑤격멸의 총성을 더 높이 울리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 남기신 고생의 흔적은 오늘도 만주의 산야에 점점이 찍혀있다.

리보익녀사께서 총 한자루 없는 몸으로 적들을 전률시킬수 있은것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미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시였기때문이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늙으신 몸으로 적들의 강권과 위협에 휘여들지 않고 혁명가의 할머님으로서의 존엄과 지조를 끝까지 지킨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만주땅에서 돌아오신 리보익녀사께서는 한동안 여기 오류리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려보며 굳세게 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리보익녀사는 직업적인 혁명가가 아니였다.

학교를 다니신적도 없었고 조직적인 교양을 받으신 일도 없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계시였기에 원쑤들의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다.

해방후 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부둥켜안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라고 하시며 눈물지으시던 리보익녀사.

쟁쟁하던 자손들이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스무해사이에 한줌 흙이 되어 낯선 산천에 뿔뿔이 흩어졌으니 녀사의 심정이 그 얼마나 아프고 쓰리시였으랴.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20년만에 고향집에 오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빈손으로 왔다고 말씀드리자 녀사께서는 왜 빈손이란 말이냐,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네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왔으니 나는 그이상 더 바랄게 없다. 네가 크고 해방이 크지 세상에 더 큰게 뭣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녀사께서는 쓰라린 아픔, 겪으신 고생은 한가슴에 다 묻어두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크고 귀중한것으로 여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그 어떤 특전특혜도 바람이 없이 끝없는 헌신과 열렬한 애국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리보익녀사의 한평생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이런 불변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 그것이 곧 가정을 위하는 길이며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전광남

— 력사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 —

지극한 효성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이끄시고 몽강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께서 장백현 가재수마을에 연금되여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시였다.

가재수의 지하조직성원들은 할머님의 정상이 말이 아니니 부대를 보내여 구출작전을 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럴 형편이 못되면 자기네 조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님을 구원하겠으니 량단간에 결심을 내려달라는것이였다.

한 지휘관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소부대를 동원해서라도 할머님을 구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의할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아픈 심정을 이겨내기가 힘드시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을 이겨낸다는것은 참으로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만경대고향집에 처음으로 들어서시던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할머님께 그동안 자신때문에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고생이야 네가 한 고생에 어찌 비기겠느냐고 하시고는 인차 뒤말을 잇지 못하시였다.

리보익녀사의 평생의 뜻과 인생관은 이처럼 뜨겁고 고결한것이였다.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 당을 창건하고 국가건설이나 끝내면 할아버님, 할머님을 평양에 모셔와 함께 사시려 하시였다. 그러나 할아버님, 할머님께서는 그것을 사양하시였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리보익녀사의 소박한 철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생을 로동으로 늙어오신 할아버님, 할머님에게 다문 얼마간의 휴식이라도 시키고싶으시여 이따금씩 조부모님들을 댁에 모셔오군 하시였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님, 할머님께서는 일감을 달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그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실 때면 리보익녀사께서는 내 걱정은 안해도 되니 백성들 걱정이나 하라고 하시며 늘 그것을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러시다가는 일거리가 없으니 갑갑해서 야단이고 흙을 밟지 않고 지내자니 속에서 불이나 못 견디겠다고 하시면서 매번 한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만경대로 돌아가군 하시였다.

농사일을 잘하여 맏손자분이 돌보는 나라의 정사를 도우시려는 마음에서였다.

이제는 응당 자손들의 부양이나 국가적우대를 받으시며 편안히 사셔야 하였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인민들이 다 잘사는 그날을 위해 곡식 한포기라도 더 심고 더 잘 가꾸려 하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몸바쳐 일해나가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도 지성을 다하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직 나라일에만 전념하시게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농사일을 하시고 집안일을 돌보시였다.

본사기자

자립적국방공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정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정말 장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주체61(1972)년 3월 어느날 한 기계공장에 파견되여 사업하던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천로동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그이께 그곳 로동계급이 공작기계 1만대생산수준을 돌파하기까지의 나날에 이룩한 혁신적성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회천동무들의 정신상태가 알린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그가 회천으로 떠나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회천의 로동계급에게 지금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서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얼마나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는가를 심장깊이 깨닫게 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현실속에 들어간 일군은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어떤 거대한 정신력을 폭발시키는가를 보았던것이다.

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천로동계급의 투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은 몇가지 이야기들을 있은 사실그대로 말씀드리였다.

한 로동자가정에서는 부모와 아들딸모두가 공작기계 1만대생산전투에 참가하고있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몸을 다쳐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숨기고 전투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작업반동무들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다. 상처가 심상치 않게 독을 쓰면 날 자식들은 자기들이 밥을 새워 아버지의 몫까지 해내겠으니 병원으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몇번이나 말했는가. 공작기계 1만대고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기대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용히 치료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사업과 생활에서 울타리를 치고 소심하게 살아오던 한 기술자가 있었다. 공작기계 1만대생산전투의 거세찬 열풍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본 그는 당조직을 찾아가 옹졸하게 살아온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설계실과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의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매우 중요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전쟁시기부터 이 공장에서 일해온 오랜 한 로동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운명의 시각에 그는 아들을 불러 당부하였다.

네가 내 아들이 분명하다면 이 애비의 말을 명심해두거라. 공작기계 1만대고지점령의 날을 꼭 보려고 했는데…오늘 밤중으로 나를 네 삼촌네 집에 데려다주렴. 거기서 내 조용히 가겠으니 너는 일터를 떠나지 말고 1만대고지를 점령하는 날까지는 내가 죽었다는걸 공장에 알리지 말아. …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일군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참으로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시여 눈굽을 닦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천의 로동계급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떠섰다고, 로동계급이 자기 수령의 결심과 의도를 알고 분발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힘을 내는가 하는것을 회천의 로동계급은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다고, 회천의 로동계급은 불굴의 혁명정신과 새 기술혁신의 봉화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3대기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앞장에 서서 우리 인민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고 하시며 정말 장하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끝없는 격정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은 심장으로 웨치고있었다.

회천의 로동계급의 장한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장시켜주신 모습이라고.

이것이 어찌 수십년전의 지나간 이야기라고만 하랴.

천만군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낳게 하고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시대의 선구자들을 키워내고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해제끼는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본사기자

한 기대공이 받아안은 특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언제나 군인들과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상과 씩씩한 모습에서 힘을 얻으며 그 과정에 일을 새롭게 전개할 구상도 하군 합니다.》

주체89(2000)년 1월말 어느날,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의 현지지도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많은 로동자들을 친히 만나보시였다.

로동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작업모습도 대견하게 보아주시고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였으며 따뜻이 격려해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런 믿음과 사랑속에서 한 로동자의 손을 네번이나 잡아주신 감동깊은 일화도 태여났다.

어느 한 작업장을 지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앞에 있는 커다란 기대를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공장의 일군은 그이께 기대를 가리켜드리며 그 기계의 용도와 사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그의 말을 다 들으시고 장군님께서는 작업중에 있는 기대공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기대공의 기름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장군님, 저는 지금 베아링을 연마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방하게 웃으시며 좋소, 이 공장 로동계급은 남자이건 녀자이건 패기가 있고 랑만적이여서 마음에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손을 잡아봅시다라고 하시고는 그의 손을 두번다시 잡아주시였다.

기대공은 그이께 이 기대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중요하게 쓰이는 일종의 베아링을 생산하는 연마기라고 말씀드리고나서 베아링생산공정과 기술규정에 대해 조리있게 설명해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실히 이 공장 로동계급은 아는것도 많다고, 매우 박식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을 세번째로 잡아주시였다.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기대공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도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받아안은 은정이 꿈만 같아 두눈을 슴벅이던 기대공은 그이께 또다시 말씀드렸다.

이전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대형베아링을 전부 외국에서 사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팡팡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베아링과 같이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로 훌륭히 생산보장하겠다는 결의를 힘차게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대답이 그리도 기특하시여 정넘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보시오, 얼마나 장합니까, 난 로동계급의 이런 결의를 들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라고 교시하시고는 그의 손을 또다시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네번째로 기대공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환한 웃음속에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믿는다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맨 앞장에 세워주시려는 크나큰 믿음을 다시금 깊이 느끼며 기대공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몇번이고 되새기였다.

인류력사에 산업혁명의 포성이 울려 기계설비와 함께 그것을 다루는 기대공이 생겨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가.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이렇듯 평범한 로동자들의 일터에까지 찾아와서 그들의 기름묻은 손을 하나하나 잡아준 그런 령도자가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 로동계급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만이 받아안을수 있은 특전이였다.

본사기자 한영민

위대성교양을 활발히 벌려

숙천청년과수농장 당조직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먼저 일군들이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당보에 실리는 기사들을 학습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도 한 작업반에 나간 일군은 쉴참에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위대성교양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심화되는 속에 지금 이곳 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충정의 로력전투를 벌리고있다.

로동통신원 한영일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녀병사와 붉은 감

손에 감을 쥐고있는 처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군인가정의 본보기인 엄복순동무네 가정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손경실동무를 가리켜 정을 담아 하신 말씀이다.

그날은 주체89(2000)년 2월 17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나어린 녀병사를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손경실이는 손에 감을 쥐고있는 처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손경실이는 아무리 보아도 감을 쥐고있는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경실이는 감을 쥐고있어야 제격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현지시찰의 길에서 체험하신 사실을 들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주체86(1997)년 11월 어느날 감나무중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깊으시였다. 한 녀병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으시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녀성해안포중대를 현지지도하면서 보니 수령님께서 그 중대를 현지지도하실 때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렸던 녀성의 딸이 자기 어머니가 서있던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고있었다고, 그가 자기 어머니가 해안포중대에서 복무할 때 심은 감나무에서 딴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자기가 서있던 초소에 딸을 세운것도 훌륭하고 그 딸이 어머니가 심은 감나무에서 딴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생각을 한것도 기특하다고 하시였다.

붉은 평장에 한줄을 얹은 18살의 녀병사, 그가 손에 쥐었던 한알의 감을 어찌 평범한 감이라고만 하랴. 그것은 대를 이어 두터워지는 최고사령관과 전사들, 최고사령관과 한 군인가정의 혈연의 정을 말하여주는 작고도 큰 상징물이였다.

온 나라에 감을 쥐고있는 녀병사로 알려진 손경실동무,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후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붉은 감이 더욱 소중히 자리잡았다. 해마다 알차게 열려 붉게 익는 감처럼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높이 수놓아가려는 마음이 녀병사의 가슴에 꽉 차있지 않았던가.

연약한 처녀의 힘으로 포를 다룬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녀병사는 붉은 감을 생각하였고 당당한 녀성해안포병의 모습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는 결심을 가다듬군 하였다. 그는 해풍에 얼굴이 타고 겨울바람에 온몸이 얼어드는 때에도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포를 능숙히 다룰수 있는 장수힘을 키웠다.

주체89(2000)년 2월의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를 세번째로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 화력복무훈련모습을 보여드린 손경실동무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녀병사를 곁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실이가 그동안 키도 크고 몸도 좋아졌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실이가 보고싶어 여기에 오기 전에 동무가 중대에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았는데 방송야회준비때문에 평양에 올라갔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만나지 못하는줄 알았다고 하시였다. 딸자식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아버지라도 이보다 더 살뜰하고 웅심깊으실수 있을가.

녀병사의 가슴은 격정에 북받쳤다.

녀병사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갔다가 언제 왔는가고 하시며 경축무대에 가서 뭘 연설하려 했댔는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친근하게 권유하시였다.

2월 16일경축 방송야회에 출연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영광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조국의 해안초소를 대를 이어 지키겠다는것을 이야기하려 하였다는 그의 씩씩한 보고를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좋다고, 한번 말해보라고 적극 지지해주시며 경실이가 경축무대에서 말하는것을 록음하여 자신께서 직접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하시였다.

녀병사에게 부모의 건강과 사업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중대에 자주 찾아오는가도 물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에 간다는것을 아시고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라고 그의 앞날까지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손경실동무는 조국보위성전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군인이 아니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어제날 감을 들고있던 나어린 녀병사가 몰라보게 성장하여 어머니가 섰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고있는 사실이 더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중대는 감나무중대라고, 경실이가 감을 들고 자신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것을 보고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중대들에서 감나무를 심는 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특히 인민군대안의 녀성중대들에서 감나무를 많이 심으면 최고사령관이 중대에 온다고들 말한다는데 대하여 들려주시며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병사시절을 마친 손경실동무의 삶의 길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은 더욱 따사로이 비쳤다.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받아안은 끝없는 영광, 제15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의 성원으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 정치대학과정안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를 감나무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사업하도록 하신 은정깊은 조치, 감나무중대에 네번째로 찾아오시여 어엿한 정치일군으로 자라난 그의 모습을 보시며 부모의 뒤를 이어 총대로 조국을 받들어가고있는 애국적소행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신 사실…

어찌 이뿐이랴. 어느덧 제대되어 시집을 가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결혼상까지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손경실동무는 인생의 기쁜 날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지 않았던가.

진정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이 피여나듯이 손경실동무에게 있어서 우리 장군님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으시고 한량없는 정과 열로 어엿이 성장시켜주신 위대한 태양이시였다.

어제날의 녀병사는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인생의 영광을 누려가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감나무중대에 대하여 추억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감나무중대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어머니가 섰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고있는 손경실동무와 같이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고, 그때 손경실동무는 제일 크고 잘 익은 감을 손에 쥐고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녀병사시절의 그때처럼 삶을 빛내여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처녀시절 감을 들고있던 량볼 붉은 녀병사가 군관의 안해로,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되였지만 그는 지금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대를 이어 보답하리라!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감을 들고 꿈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그날의 감격을 안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려는 불같은 마음을 담아 손경실동무는 오늘도 군사복무의 나날에 지었던 시 《감나무, 너와 함께》의 구절들을 즐겨읊군 한다.

…

그날에만 살리라 감나무야
내 한생 열매를 주렁지워도
 너처럼
장군님께 기쁨줄 열매를 무르
 익히고
뿌리를 내리여도
바람세찬 도래굽이에
너처럼 내리리라
내 영원한 삶의 뿌리를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발휘된 혁명적인 당사업기풍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강원도당위원회 경험을 놓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원도인민들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인 원산군민발전소가 준공되였다. 원산군민발전소의 준공으로 강원도의 인민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의 고귀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심과 무한한 사상정신적힘을 축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당조직들이 튼튼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경제가 일떠서게 되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의 완공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기본열쇠가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 특히 책임일군들에게 쥐여져있으며 일군들이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상적으로 발라붙어야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는 당중앙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 도안의 유훈관철대상들중에서 조건이 제일 어렵고 작업량이 가장 방대하였던 발전소건설을 사상의 힘, 정신력의 위력으로 끝끝내 해제낀 강원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당의 령도의 지역별보좌단위인 도당위원회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투쟁에서 어떤 정신과 본때로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참으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중도반단이란 있을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체98(2009)년 1월 완공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사람들의 불굴의 기개와 필승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새로 건설하게 될 발전소를 《원산군민발전소》로 명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에 많은 일을 해놓아 이듬해 7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소한의 강추위도,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원땅을 찾고찾으시여 원산군민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발전소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깨끗한 량심을 바쳐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 마지막발자취를 남기신지 여러해가 흘렀다. 언제와 물길굴공사장 등 발전소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여 건설장의 면모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과 난문제들이 제기되여 발전소건설속도는 점차 떠지고 해를 넘기면서 건설은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도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된 박정남동무의 마음속에 제일 무겁게 자리잡은것은 바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이였다.

물론 강원땅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부터 산생되는 어려운 작업조건이나 건설자재와 기계설비들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원인은 다름아닌 도안의 일부 일군들의 발전소건설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립장에 있었다.

성과에 만족을 느끼며 앉아뭉개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거나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전소건설에 낯을 적게 돌리는 현상도 나타나고있었다. 일군들의 이러한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는 발전소건설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우에서는 사무실에 앉아 건설정형에 대해 보고받는것으로 그치고 해당 단위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놓고 우에 밀고 아래에 내려먹이는 식으로 일하다보니 발전소건설이 굼뜨게 진행되는것은 당연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발전소건설장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할수록 도당책임일군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졌다.

당조직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는것은 당중앙의 의도이며 혁명의 요구이다. 그런데 유훈관철전의 기수가 되어야 할 일군들부터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추호도 미룰수 없고 양보할수도 없는 중차대한 일감으로 여기고 완강하게 내밀지 못하고있는것은 간과할수 없는 심각한 사상적문제였다.

일군들의 사상적해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도반단이라는 엄중한 후과를 낳을수 있는 종양과도 같은 무서운 병집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도당책임일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대한 조직사업과 총화사업을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대하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충실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발전소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자각하였다.

오늘도 도의 일군들은 지난해 원산군민발전소 물길굴건설 1려단의 전투현장에서 열린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울려나온 도당책임일군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않고있다.

여기는 우리 도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마지막발자취가 찍혀져있는 곳의 하나이다. 그때 우리들모두가 강원땅의 인민들과 일군들을 온 나라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기 위해 그처럼 로고를 바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를 다지지 않았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그 간곡한 당부를 실천하지 못한 일군이 어떻게 머리들고 인민들앞에 나설수 있는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충실성을 검증하는 시험장이다. 중도반단이란 있을수 없다!

그날 일군들모두가 크나큰 충격속에 지난 기간의 사업태도들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고 한다.

협의회를 계기로 도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들인 사무실적인 사업방법, 소방대식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고 거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한 당중앙의 요구대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도당위원회사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주선으로 내세웠다.

도, 시, 군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을 발전소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물길굴건설장에 파견하여 현장정치사업을 장도높이 벌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능력있고 손탁이 센 일군들로 지휘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월에 1차이상 진행되는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전투총화모임장소가 현장으로 옮겨졌다.

물길굴건설장에서, 발전설비조립전투장에서 공사실적을 놓고 일군들의 사업이 심각히 총화되였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도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임참가자전원이 회의에 앞서 물이 허리를 치는 갱이며 설비조립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총화를 시작하는것을 관례화하였다.

도당집행위원회, 도당전원회의를 비롯하여 도당위원회가 조직하는 크고작은 회의와 모임들에서 발전소건설문제를 기본의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며 총화평가사업을 엄격하게 하는 등 도당위원회사업의 전반내용을 유훈관철로 일관시키고 드세게 밀고나갔다.

뿐만아니라 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을 발전소건설장에 집중전개하고 화선식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련속적으로 들이댐으로써 건설자대중을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은 모든 당조직들을 분발시켰다.

도급기관 당조직들과 시, 군당위원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그 정형을 유훈관철과 결부시켜 총화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기풍이 확립되여 온 도가 유훈관철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다음으로 도당위원회가 중시하고 힘을 넣은것은 발전소건설에서 일군들이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앞장에서 돌격로를 개척하는 기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신작칙의 기풍으로 이끌어주는 문제였다.

지난해 어느날 물길굴건설장에 돌발의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지하수와 집채만 한 바위가 금시라도 떨어질듯 한 위험한 붕락구간들이 전투원들의 앞을 막아나섰다.

생명을 내대야 하는 정황앞에서 지휘관들도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던 그때 동발목을 어깨에 메고 갱안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당의 책임일군들이였다. 만류하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향해 웨치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우리가 물러서면 온 도가 주춤거리고 유훈관철이 그만큼 늦어진다.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뚫고나가야 한다. …

도당책임일군들의 불굴의 모습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게 하였다. 책임일군들의 모범을 따라 공사장의 위험한 모퉁이, 어려운 구간에 지휘관들이 먼저 어깨를 들이댔다.

지난 3월 26일, 물길굴의 마지막림시물막이구조물에 대한 발파작업때에도 결사대의 앞장에는 지휘관들인 리상철, 리동훈, 리일국, 리일동무들이 서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구조물앞에 두발을 뻗치고 서있는 지휘관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 도수산관리국대대의 결사대원들은 배심든든히 착암기를 들이대고 불이 번쩍 나게 발파작업을 해제껴 15시간만에 물길굴을 관통시키는 성과를 안아왔다.

물길굴건설1려단 김화군중대 중대장이였던 김철영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전투현장에서 주사를 맞으며 작업을 지휘한 김철영동무,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기어서 못 가면 넋이라도 가야 한다며 전투장으로 향했던 그가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은 무엇이였던가.

중대전투원동지들, 나의 몫까지 합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려달라. 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오직 앞으로…

일군들의 선구자적모범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강원땅의 전체 인민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유훈관철은 우리의 생명!

바로 이것이 강원도당위원회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전투를 통하여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굳건히 세워준 억척불변의 신념의 기둥이였다.

기적의 대문을 여는 열쇠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있는 유역변경식수력발전소인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한 조건에서 진행된 대자연개조전투였다.

특히 수십리에 달하는 물길굴건설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엄혹한 환경에서 벌어졌다. 물길굴 5갱부터 8갱까지 수천m의 구간을 완공하는데 수년세월이 걸렸다는 하나의 자료만으로도 공사량의 방대함과 조건의 가혹성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부스러진 돌들이 떡모양을 이루고 쌓여있는 파쇄대에 5갱부터 8갱까지의 물길굴이 놓여있었던것이다. 각이한 암질조건과 때없이 일어나는 붕락도 난문제였지만 기본장애물은 물이였다.

사방에서 석수가 쏟아져내리고 시간당 천수백㎥의 지하수가 터져나왔다. 물뽐프가 고장이 나거나 잠간만 정전이 되여도 순식간에 설비들이 물에 잠기고 작업갱사갱입구에까지 물이 차오르군 하였다. 그야말로 자연과의 전쟁, 물과의 치렬한 격전이였다.

물을 퍼내고 침수된 설비들을 건져내오기를 수십, 수백번.

기계도 못쓰게 되고 사람도 지쳐 쓰러질 정도였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가도 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없다. 물길굴을 돌리는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는 맥빠진 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물길굴을 돌리다니?!)

도당책임일군의 두눈에서 섬광이 번뜩이였다.

무슨 소릴 하는가. 이 물길굴의 위치는 우리 장군님께서 잡아주셨다. 설사 땅이 꺼지고 바다물이 통채로 쏟아든대도 장군님 찍어주신 좌표는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강원도사람들이 있는 한 물길굴은 단 한치도 에돌수 없다.

이런 투철한 각오를 안고 도당책임일군들은 난관극복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책임일군들이 전투현장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료해하고 여러차례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작전안이 세워졌다.

도당위원회의 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은 대대, 중대들사이의 협동작전을 강화함으로써 온 건설장에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이였다. 사회주의의 본태이고 생명인 집단주의에 의거할 때에만 엄혹한 난관을 타개하고 발전소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도당위원회는 앞선 단위가 뒤떨어진 단위를 도와주고 뒤떨어진 단위들은 앞선 단위들을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격전을 벌리도록 선전선동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일군들이 직접 실천적모범으로 경쟁의 불을 지피게 하였다. 집단주의기풍이 확립되고 단계별 사회주의경쟁이 고조를 이루는 속에 물길굴공사장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였다. 8갱을 담당한 룡평제련소대대 전투원들이 희생적인 투쟁으로 도갱을 관통하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때 도수산관리국대대의 전투원들은 설비를 수입하기전에는 갱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잡소리를 짓누르고 수위차를 리용한 새로운 공법을 받아들여 자체의 힘으로 단 몇달만에 침수되였던 갱을 복구하고 굴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갱굴진에 이어 물길굴확장과 피복공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도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불리한 암질조건과 지하수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정황에 맞게 확장과 피복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는 합리적인 공법이 창안도입됨으로써 공사속도는 배로 높아졌다.

가슴을 치는 물속에서도 전투원들은 자동차다이야쥬브와 도람통으로 떼를 무어 혼합물과 버럭을 나르면서 한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 1월 18일까지 물길굴확장과 피복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난관은 의연히 남아있었다.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속에서 바닥포장을 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해본적 없는 일이였다. 경험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일군들까지도 도리머리를 치며 물러설 정도로 조건은 불리했다.

이때에도 도당책임일군들의 결심은 단호했다.

흐르는 물속이 아니라 동해바다 한복판이라고 해도 타일을 해야 한다. 한몸이 그대로 타일물이 되여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해야 한다.

이런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해결책을 탐구하던 도당책임일군들은 그 방도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에서 찾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건설에 새 기술과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과학기술, 이것은 승리의 지름길을 열어준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과학기술력량을 총발동시키는것과 함께 온 건설장에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도당책임일군들부터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선구자가 되였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침식도 같이 하면서 주저앉을세라 힘을 주며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도당책임일군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과학자, 기술자들은 마침내 실정에 맞는 급결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비상한 창조력이 발휘되는 속에 류역변경식, 뚝막이식바닥타일공법, 수채에 의한 혼합물압송방법 등 수많은 건설공법들과 기술혁신성과들이 창안도입되여 공사속도가 부쩍 높아졌다.

결사관철의 정신과 과학기술중시는 지난 3월말까지 물길굴을 완공하는 기적을 낳게 하였다. 자연과의 전쟁, 물과의 격전에서 강원땅의 인민들은 승리자가 되였다.

결사관철의 정신과 과학기술,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틀어쥔 기준이고 위력한 무기였다. 결국 기적의 대문을 여는 열쇠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에 있었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 장군님의 유훈이라면 목숨을 내대고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끝까지 관철하려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주는것이 모든 당조직들의 임무인것이다.

호소나 구령으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과 믿음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킨것, 바로 이것이 강원도당위원회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승리에로 이끈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수 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의 전 과정은 도당위원회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뼈속깊이 심어준 나날로 뜨겁게 엮어져있다.

지금도 도안의 일군들은 물길굴건설장에서 열리였던 어느 한 협의회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군 한다.

도당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소집된 당, 행정일군들의 긴급협의회였다.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토의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제기된 안건을 놓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협의회에 상정된것은 뜻밖에도 건설자들에게 된장을 시급히 보장하는 문제였다.

사연이 있었다.

바로 전날 한낮이 지날무렵까지 물길굴건설1려단의 작업현장을 료해하고난 도당책임일군은 고성군중대의 병실로 발걸음을 돌리였다. 침실이며 세목장을 돌아보고 식당에 들어서서 국맛을 보던 도당책임일군의 낯색이 대번에 어두워졌다. 중대지휘관에게 물어보니 며칠전에 된장이 떨어졌다는것이였다. 한주일이 멀다하게 현장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건설자대중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었다는 자책감이 그의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다른 단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즉시에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도당책임일군은 해당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조직할것을 결심하였다.

이날 자신을 심각히 반성하고나서 도당책임일군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사랑하자고 맹세를 다진 우리 일군들이 건설장에 내려와서 세멘트나 철근의 수자는 따지면서도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면 쌀독과 장독뚜껑부터 먼저 열어보시며 친어버이의 정을 베풀어주시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일해왔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 일군이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모두 명심하자. 저 발전소언제는 세멘트나 철근으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건설자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일떠선다는것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일군들모두가 전투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줄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실질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

도당위원회의 이런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일군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자!

모든 일군들이 이것을 삶의 신조로 새겨안고 대중속으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후방물자나 넘겨주고 돌아가군 하던 유람식일본새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현장에서 생일을 맞는 연구사를 위해 친혈육의 심정으로 생일상을 차려준 발전소건설지휘부 정치부장 림석순동무며 허리를 치는 물속에서 일도 함께 하고 주먹밥도 같이 들며 가정사를 헤아려주고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 일군들의 친어머니와도 같은 사랑은 대중의 가슴마다에 위훈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여기에 믿음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몇해전 한 일군이 범한 과오를 놓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심각한 론의가 있었다.

과오가 엄중한것으로 하여 더는 용서할수 없다는것이 적지 않은 일군들의 공통된 의견이였다. 대오에서 아예 제명해버리자고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도당책임일군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물론 용서할수 없다. 그렇다고 버려야 하겠는가.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다.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한명의 락오자도 있어서는 안된다. 믿음과 정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충정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동지로 되게 해야 한다.

도당위원회는 그 일군을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밀어보냈으며 건설현장에서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을 쌓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당조직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벅찬 투쟁의 한복판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였다.

이런 이야기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수백리 밤길을 몇차례나 오가며 온갖 심혈을 기울여 한 대원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준 도수산관리국대대의 정치일군에 대한 이야기, 잘못 살아온 인생의 상처를 안고있던 한 돌격대원을 따뜻이 품어주어 로력혁신자로, 지휘성원으로 내세워준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책임일군에 대한 이야기…

가식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은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을 키워냈다.

가슴아픈 희생앞에서도 전투원들은 비관이나 동요를 몰랐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높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전투에 전투를 이어나갔다.

도당책임일군으로부터 가두녀성들에 이르기까지 도안의 전체 인민이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가는 힘있는 전투대오를 이룬것, 바로 이것이 도당위원회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얻은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이다.

* *

최악의 조건에서 상상밖의 기적을 창조한 강원도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도당위원회의 역할, 도당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백히 확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도당위원회들은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 전망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자기 힘으로 도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이 귀중한 가르치심은 도당위원회들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피어린 투쟁의 대가로 고귀한 투쟁경험을 창조한 강원도당위원회처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당원들과 인민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6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서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각급 조직들의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고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안건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더 높이 과시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려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동맹원들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드세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를 점령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리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며 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첫째 안건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주체105(2016)년 8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1비서, 비서로, 기층청년동맹조직들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서, 부비서로 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7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시고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로선과 투쟁과업들을 비롯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이 일군들과 녀맹원들을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대회결정관철에로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원들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보고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며 학습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에서 모든 녀맹원들이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라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원들은 과학기술전선에 서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안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에서 당면하여 모든 녀맹원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에 적극 떨쳐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돌격대활동을 지역적특성에 맞게 벌리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중문화예술활동으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살림집을 알뜰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동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녀맹원들이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내기전투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여 최적기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자

협동벌마다 농기계들의 동음 힘차게 울려퍼지게

각지 농촌들의 농기계작업소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합니다.》

너도나도 만리마를 타기 위한 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속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의 병기창들에서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모내는기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이어 매일 수십종의 많은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여 협동벌마다에서 농기계들의 동음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과감하게 벌리고있다.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여러가지 앞선 모기르기방법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정당 포기수는 지난 시기보다 거의 절반정도 줄어든 반면에 벼모들의 렬과 렬, 포기와 포기사이거리는 일정하게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종전의 모내는기계들을 대담하게 개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응당한 높이에서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로부터 각지의 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모내는기계의 여러 부분품들을 소식재배방향으로 나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모렬수를 줄이기 위해 모내는기계의 배관을 개조하여 벼모들의 렬간거리를 종전보다 늘이였다. 또한 정당 포기수를 줄일수 있도록 동력전달장치와 련결된 치차들의 이빨개수를 조절하여 그 회전수를 낮추었다. 다발적, 련발적인 기술혁신성과들의 적극적인 도입은 모내는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시기를 다투는 모내기에서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연안군에서는 모내는기계의 모렬수를 종전보다 두줄정도 줄여 지난 시기 한정보의 영양단지모내기를 하는데 동원되던 30여명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모내는기계의 배관과 전동함, 모꽂는 장치를 개조하여 렬 및 포기사이거리를 종전보다 늘인 송산군에서는 영농물자측면에서의 알곡생산원가를 종전보다 20~30%이상 줄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대동군농기계작업소에서 개조하였던 모내는기계들에서는 지난 시기 빈포기와 영양랭상모가 한곳에 무리로 꽂히는 현상이 나타나군 하였다. 그 원인이 모꽂는 장치에 있다는것을 포착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부족점을 제때에 퇴치함으로써 20~30명의 모보식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기계화의 우월성을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게 해준 또 하나의 좋은 계기로 되였다.

배천군과 청단군의 간석지논들에서는 모운반에 편리하게 개조된 모내는기계들이 포전을 누비고있으며 재령군과 사리원시, 박천군과 개천시, 안주시안의 농장들에서도 모종류별특성에 따라 모내는기계들의 리용률이 높아진것으로 하여 날마다 작업실적이 오르고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모내는기계들의 혁신적인 개조사업은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높은 뜻을 관철하는데서 또 한걸음의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뜻깊은 올해의 알곡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부속품생산투쟁을 더욱 맹렬히

모내기전투장들이 열기를 띨수록 농업전선의 병기창들에서는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을 위한 부속품생산투쟁이 더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황주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신들메를 더 힘껏 조이고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분발해나섰다. 지난 시기의 현장수리경험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운동부하를 많이 받는 부속품들일수록 고장이 자주 난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여기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이에 따라 작업장치에 동력을 련결해주기 위한 축, 각종 치차류, 베아링집, 제동원통을 비롯한 50여종의 부속품들이 하루 최고 150여점이나 생산되여 각 농장들에 보장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포전에서 고장난 농기계들을 살려내는데 걸리던 며칠기간을 단 몇시간이내로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들의 가동시간과 작업면적이 종전보다 훨씬 늘어난것만큼 모내기의 최적기보장이 담보되고있다.

부속품생산실적을 높이는것도 좋지만 질보장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숙천군농기계작업소의 종업원들은 하나하나의 부속품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생산하고있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떳떳이 과학적으로 담보된 소재로 크랑크축은 물론 7종에 20여점의 뜨락또르부속품들을 자기 단위의 제품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생산하고있다. 또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열처리기를 새로 제작리용하여 부속품들의 사용기간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여기서 생산한 부속품들은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농촌기계화초병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생산된 부속품들이 제때에 포전에 가닿는것만큼 농기계들의 가동시간이 늘어난다. 이것을 명심한 단천시와 함주, 금야, 정평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은 부속품들이 생산되는족족 해당 농장들에까지 보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수원역할도 하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여 각 농장들에 전개된 이동수리조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며 그 결과 포전에서 농기계들의 가동시간은 하루 3시간정도 더 늘어나 그만큼 모내기실적이 오르고있다.

홍원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갖가지 부속품들을 정밀하게 생산하여 군안의 농촌기계화초병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이 당면한 전투과제수행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고있다.

문덕군, 정원군, 룡천군, 화대군, 경원군, 룡천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도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부속품생산실적이 날마다 올라 모내기전투장들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모든 난관을 비약의 도약대로 전환시키고있는 각지 농촌기계화의 전초병들은 협동벌에 더 많은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적은 연유로 최대의 작업능률을

개조한 배기관

당의 뜻을 받들고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에서 뜨락또르들의 배기관을 개조하여 종전보다 연유를 적게 쓰면서도 작업능률을 높이고있다.

일반적으로 뜨락또르의 작업능률은 배기가스를 잘 내보내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오르내린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배기관의 모양에 관계된다고 한다.

종전의 배기관은 짧은 수평관과 그에 잇달린 수직관으로 되여있는데 뜨락또르가 가동하면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가 수직으로 꺾인 부위에서 원만하게 빠지지 못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기관이 열을 받아 수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배기관을 개조하면 종전보다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것을 알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평관을 이전보다 길게 하고 관의 꺾임부분도 완만하게 굽혀주어 배기가스가 잘 빠지도록 배기관을 개조하였다.

지금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배기가스가 잘 빠져 기관이 열을 받던 현상도 없어졌으며 종전에 비하여 뜨락또르 한대가 정보당 수kg의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써레치기를 질적으로 내밀고있다.

은을 내는 쇠바퀴

모내기전투로 들끓고있는 협동벌들에 나가보면 물논써레치기나 습한 논갈이에 새 형태의 뜨락또르쇠바퀴를 리용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이 쇠바퀴를 리용하고있는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보다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작업속도를 높일수 있어 좋다고 한다.

종전에는 물논써레를 칠 때 뜨락또르의 뒤바퀴를 떼고 쇠바퀴만 단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이것은 썰림을 크게 하는데는 유리하였으나 속도를 높일수 없었다. 결국 작업속도가 떠진것은 물론이고 연유소비량도 많았다.

하지만 뜨락또르의 뒤바퀴에 덧달고 리용하도록 되여있는 이 쇠바퀴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물논써레를 칠 때 정보당 연유는 종전의 절반량정도면 충분하고 작업속도는 2배로 높일수 있다.

비결은 뒤바퀴에 쇠바퀴를 덧달면 쇠바퀴만 달았을 때보다 땅과 닿는 면적이 커지는데 있었다.

결국 이전보다 썰림을 크게 하면서도 바퀴가 깊이 빠지지 않게 되여 속도를 높일수 있는 두가지 효과를 다 볼수 있었다. 반대로 연유소비량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새형의 뜨락또르쇠바퀴를 적극 리용한다면 큰 실리를 얻게 될것이다.

달라진 홈의 위치

항구구역 갈천협동농장에서 지난 시기보다 뜨락또르의 정보당 연유소비량을 줄이면서 써레치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에서 높은 능률을 내고있다.

비결은 뜨락또르기관의 피스톤에 끼우는 압축가락지홈의 위치를 옮긴데 있다.

즉 압축가락지를 이전보다 일정한 거리만큼 피스톤웃면방향으로 올라와 끼울수 있도록 홈을 낸것이다. 그리고 따로따로 끼우던 2개의 압축가락지를 한번에 끼울수 있도록 홈을 넓게 냈다. 압축가락지들을 끼울 때에는 맞물림부분이 서로 반대방향에 놓이도록 하였다.

첫 압축가락지는 열에 견디는 능력이 센 재질로 된것을 리용하였다.

이렇게 하니 기통안의 피스톤압축비가 일정한 정도로 높아졌으며 같은 연유로 더 많은 작업을 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속에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려는 농장기계화작업반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누구나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들처럼 귀중한 연유를 절약하기 위해 애쓴다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더 높이 울려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현장수리이자 농기계가동시간

신천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현장수리이자 농기계가동시간이다.

신천군 일군들이 이런 관점에서 포전에서의 이동수리활동에 각별한 힘을 넣고있다. 특히 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은 드바쁜 모내기철에 농기계들의 만가동보장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가고있다.

우선 7개 지구에 이동수리조를 각각 파견하였다. 현장에서 수리를 하면 농기계가동시간을 훨씬 늘일수 있기때문이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이 있다. 그것은 매 성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그것이 농기계들의 가동시간을 늘이는데서 실지 은이 나도록 한것이였다. 지난 시기 농장들에 나간 이동수리조성원들은 기술부족으로 고장난 농기계에 대한 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고장으로 뜨락또르가 서있는 시간을 2시간만 줄여도 마른논써레치기는 1정보, 물논써레치기는 1 800평이나 더 진행하여 모내기실적을 그만큼 올릴수 있었다.

써레치기실적은 곧 모내기실적이였다.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농기계들의 동음을 듣고서도 부족점을 즉시에 찾을줄 아는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이동수리조에 망라시키였다.

이동수리조성원들은 농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을 서로의 경험들을 교환하고 배워주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었다.

결과 이동수리조성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져 농기계들의 고장원인을 제때에 찾아 신속히 수리할수 있게 되였다. 수리시간이 단축되는것만큼 가동시간은 더 늘어났다.

이곳 일군들이 가동시간을 늘이기 위해 찾은 또 한가지 방도는 농기계들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견성있게 대책한것이였다.

이동수리조성원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치차와 피스톤을 비롯한 뜨락또르예비부속품들을 가지고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예견성있게 교체해주어 고장을 미리막고있다. 이렇게 하니 뜨락또르들이 고장난 후에야 대책을 취하군 하던 종전의 소방대식일본새가 극복되여 포전에서의 실지가동시간을 늘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동수리차의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올해에는 이동수리차를 제일 먼곳에 위치한 농장들에 내보내였다. 지난 시기 이 농장들에서는 농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부속품을 재생하거나 가공하기 위해 농기계작업소에까지 찾아오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군 하였었다.

여기서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이동수리차에 선반과 용접기, 발전기, 연마기를 갖추고 농장에 나가게 하였다. 현장에서 즉시 수리해준 결과 뜨락또르가동시간을 훨씬 늘일수 있게 되였다.

작업소에서는 이동수리조들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해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농기계만가동보장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너도나도 만리마를 타기 위한 혁신운동으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모내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전명일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원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당대회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원산뜨락또르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벌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농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뜨락또르부속품들을 질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7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이 생산현장들을 맡고 내려가 로동자들속에 제품의 질제고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최근에만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종전보다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소재종합작업반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에 힘을 넣고 기술학습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소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부속품가공을 맡은 가공종합작업반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치차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가공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공무종합작업반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보수와 수리를 제때에 보장하여 뜨락또르부속품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농업부문에 질좋은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려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내기로 들끓는 도의 협동벌들마다에서 뜨락또르들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큰모내는기계들이 은을 낸다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에서 모내는기계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시간이 다르게 푸른 주단이 펼쳐지고있는 속에 매일 모내기실적은 지난해에 비하여 더욱 오르고있다.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이른 큰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기계로 모를 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큰모내는기계를 만들어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농장에 내려가 이곳 기계화작업반원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이들은 여러차례의 시험을 거듭하며 탐구와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나날에 큰모내는기계를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얼마전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서는 이들이 만든 큰모내는기계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계로 모내기를 하는 경우 지난 시기 손모내기한 포전에서처럼 모가 깊이 꽂히거나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가 정확히 보장되지 못하여 소출이 5%이상 떨어지군 하던 부족점을 퇴치할수 있다. 특히 하루에 많은 면적의 모내기를 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적기를 보장할수 있다.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작업반마다 모내는기계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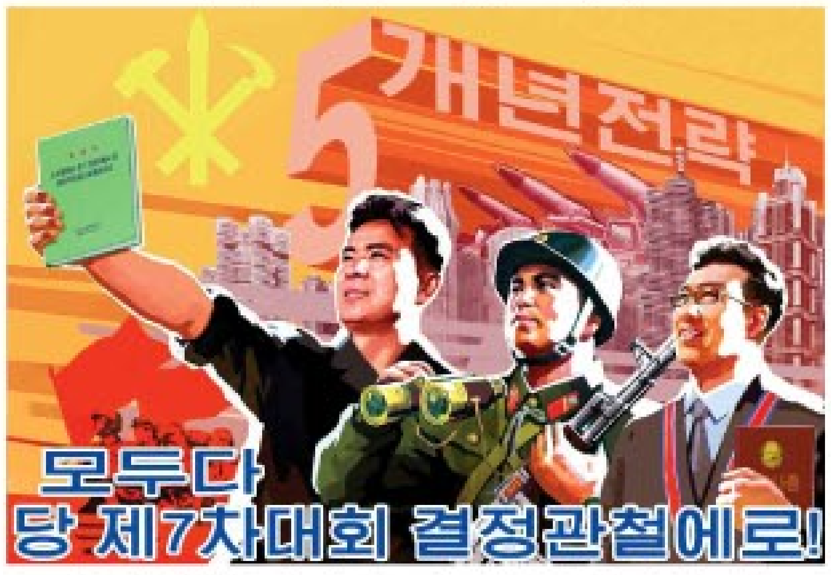
짧은 기간에 모내는기계들이 개조되여 모내기전투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본사기자 주창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 창작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받아안고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 선전화 《모두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에 반영되여있다.

선전화 《모두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로!》는 3대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형단위들을 따라앞서고 따라배우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며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직관적으로 강조하고있다.

호소성이 강하고 격동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한 선전화들은 만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총동원, 총매진해나선 천만군민의 앙양된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줄것이다.

수안땅에 농촌마을이 훌륭히 일떠섰다

수안군 좌위협동농장에 농촌마을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새로 일떠선 마을에는 150동의 살림집들과 리문화회관, 리인민병원, 유치원, 탁아소, 종합편의시설, 상점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메탄가스화된 1동1세대의 살림집들에는 두개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 세목장이 갖추어져있으며 집주변에 여러그루의 과일나무들이 뿌리내렸다.

리문화회관과 외과, 내과, 소아과 등 전문과들과 입원실이 갖추어진 리인민병원 그리고 종합편의시설과 10일유치원, 탁아소는 이곳 농장마을에 새 풍경을 펼쳐놓았다.

수안군의 일군들은 영광의 땅 좌위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 높은 목표밑에 소재지건설을 발기하고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건설자들과 농장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얼마전 이곳 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새집들이로 기쁨이 가득찬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불타는 열의가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선택파쇄공정이 새로 생겨난 사연

덕성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탄광들에서 생산의 량적장성을 이룩하는것과 동시에 그 질을 높이는것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어느 한 탄광에서 종전보다 100t의 석탄을 더 생산하였다고 하자. 이때 탄광일군들이 석탄의 질제고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여 표준회분량에 비해 몇%정도 초과했다고 하면 엄격히 놓고볼 때 이것은 증산이라고 할수 없다. 탄광들에서 생산량을 늘이는 동시에 최대한 질좋은 석탄을 보장했을 때에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실질적인 리득을 준것으로 된다.

이런 측면에서 70일전투기간 선택파쇄공정을 확립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성탄광 일군들의 사업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탄광의 현존생산조건은 매우 불리하다. 반복채굴을 진행하는 채탄장이 과반수인 조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은 말처럼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당정책의 요구를 심장으로 접수한 탄광일군들은 생산량의 장성에 앞서 질을 높이는 문제를 더 중시하였다.

우선 생산의 첫 공정에서부터 질좋은 석탄을 생산하도록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켰다.

70일전투기간 탄광일군들은 채탄중대와 소대들의 일생산 및 채정총화의 항목에 질제고측면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탄부들속에서 생산과정에 나오는 큼직한 버력은 물론이고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버력까지도 골라내는것과 같은 좋은 기풍이 확립되여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보다 질좋은 석탄을 보내줄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곳 일군들이 특히 힘을 넣은것은 석탄선별계통을 보다 혁신하는것이였다.

이미 2차선별계통이 확립된 이 탄광은 1차와 2차선별계통사이에 로과사별기도 놓아 선탄기술공정이 비교적 완비되여있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2차선별계통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를 진행하면서 덩어리탄에 섞여있는 버력까지도 모조리 골라내기 위한 선택파쇄공정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큼직큼직한 덩어리탄에 끼여있는 자그마한 버력까지 선별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덩어리탄자체가 발열량이 높기때문에 그속에 버력이 좀 끼여있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탄광으로 달려온 석탄공업성 책임부원 전정수동무와 지배인 김명일동무는 선택파쇄공정을 새로 꾸림으로써 탄광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석탄의 발열량을 높일 목표를 내걸었다. 버력이 끼여있는 덩어리탄을 골라내여 파쇄공정에서 파쇄한 다음 재로 선별한 석탄을 갱들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섞으면 전반적인 석탄의 발열량은 높아지기마련인것이였다.

이들은 해당 과학연구부문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공무부문의 로동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목표보다 보름이상 앞당겨 선택파쇄공정을 확립하고 지난 3월말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다.

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면한 생산량에 앞서 질을 중시하는 이런 일군들의 량심적이며 애국적인 일본새에 떠받들려 탄광의 전투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진행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가 25일부터 30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산수산대학,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수산과학정보연구소,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등 수십개 단위의 교원,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어로 및 수산자원분과, 고기배와 어구분과, 양식분과 등 6개의 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전시회 및 발표회에는 수백건의 제품들과 10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수산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기관들과 수산물생산 및 가공단위들, 련관단위들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며 수산물가공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마련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수산업을 추켜세우며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을 반영한 론문들이 소개되였다.

《무월개두통안강망》, 《바닥식참미역생산기술》, 《동해참게의 인공번식 및 새끼게생산방법》, 《종합생산지휘체계》 등 많은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 및 발표회기간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기술에 대하여》, 《그물우리양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도 있었다.

30일에 있은 폐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수산 및 양어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이번 전시회 및 발표회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학수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수산전선에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풍성한 결실을 안아오자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

오늘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략들을 전체 조선민족이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불변의 통일대강으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를 기어이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략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며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 그 실천방안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력사적인 당대회보고에서 제시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로선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불멸의 고무적기치이다.

때문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는 지금 온 겨레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방안대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간다면 민족의 리익과 공동의 발전, 평화번영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지금 동족대결과 《흡수통일》망상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공명정대한 통일로선들과 방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진정성없는 위장공세》니, 《핵페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하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북남관계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우리의 병진로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여달리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보수패당의 극악무도한 반인민적인 악정과 미국과의 북침핵전쟁연습책동, 외세와의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말미암아 조상대대로 가꾸어온 남조선의 농토들이 나날이 황폐화되여가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농민들이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대를 이어오며 살아온 이 강토를 기름지게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길은 오직 조국통일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는 자주적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들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야 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의 농업근로자들은 통일대회를 열고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추동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북과 남의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뜻과 힘을 하나로 합쳐 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의 각 단체들이 접촉과 래왕,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남조선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남조선의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고 북남관계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외세의 군사기지와 북침전쟁연습장으로 화한 삶의 생존공간을 되찾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하늘의 태양이 있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이 있듯이 통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온 겨레가 만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통일되고 번영하는 무릉도원이 반드시 펼쳐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과 남의 농민들이 서로 손잡고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통일강령을 받들어 우리민족끼리기치아래 마음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 공화국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조국통일투쟁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다 바쳐갈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한다.

주체105(2016)년 5월 30일
평양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적극 추동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과학기술협회, 학회들이 실천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협회, 석탄가스화협회, 나노기술협회, 연료 및 탄소협회, 일용공업협회 등 여러 협회의 일군들과 성원들은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화학공업협회, 석탄가스화협회 일군들과 성원들은 습식산화탈류공정과 정밀활성탄탈류공정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해결하고 폴리프로필렌종합촉매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의 연구집단은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함께 프탈로시아닌계렬 활성탄촉매의 탈류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새로 개발한 촉매가 다른 나라의 촉매에 비해 탈류능력이 2~4배 더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폐촉매와 자체로 생산하는 활성탄으로 정밀탈류촉매를 대신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고 이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촉매연구소에서 연구완성하여 련합기업소에 확립한 폴리프로필렌종합촉매생산공정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4세대촉매인 종합촉매를 리용하여 PP섬유로 질좋은 인견실과 스프를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탈류공정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와 3겹박막안정제도입, 촉매재생 등 생산에서 절박하게 기다리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해명은 현장기사들과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X선회절분석기를 비롯한 여러대의 정밀분석설비들과 산화환원전극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여러 계통의 정확한 측정 및 분석방법, 우리 식의 과학적인 기술지도서들도 작성함으로써 비료생산성과가 뛰여오르게 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어 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로,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더욱 빛내이는데 기여하였다.

나노기술협회, 남새기술협회, 원예학회 성원들인 평양천연향료연구소와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온실제1작업반에 나노생물성장촉진제와 여러종류의 나노분산제들을 비롯한 수십종의 첨단기술제품들을 도입하여 은이 나게 하였다.

토양소독을 위해 《청송향》을 비롯한 살균력이 강한 소독제들을 널리 리용하게 하는 한편 과학적인 농약처리방법과 발전하는 온실남새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기술학습도 실속있게 진행하여 생산을 1.2배이상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연료 및 탄소협회와 일용공업협회 등의 일군들과 성원들도 선교구역연료사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 설비들의 제작과 관련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주었다.

본사기자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정히 받드는 훌륭한 소행

경흥지도국에서 과학자들에 대한 안경봉사활동 진행

경흥지도국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고 온갖 혜택을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정히 받들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4월말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안경을 봉사해줄데 대한 당의 뜨거운 은정에 접한 경흥지도국에서는 안경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향만루상점 분점의 봉사환경을 더욱 훌륭하게 꾸려놓고 5월 2일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경흥지도국의 일군들과 상점의 봉사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최신식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안경제작에 필요한 자재들도 충분히 확보하여 당의 사랑이 그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였다.

첨단설비들이 훌륭히 완비되고 갖가지 안경테와 안경알들이 매장에 가득한 이곳에서 최상의 봉사를 받는 수천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당 제7차대회에 가장 큰 로력적 선물을 드린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들이 시력검사실에서 콤퓨터화된 자동시력검진설비로 시력에 대한 진단봉사를 받으며 자기들이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세심히 마음쓰는 봉사자들의 지성에 뜨겁게 감복하였다.

CNC화된 자동정밀제작기로 시력에 따르는 안경알들을 가공하여 테에 맞춰주는 안경제작실에서 자기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새 안경을 안고 나서는 과학자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국가과학원,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의 로학자들, 설계원들은 새로 제작한 돋보기를 척 끼고 과학기술강국의 미래가 내다보이는 만리경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치의 고마움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토로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인재로 여기시며 품없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빛내이는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는 봉사자들의 진정이 그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모두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을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당 제7차대회 과업을 받들어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힘있게 선도해갈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교육현대화의 귀중한 재부—자강력

덕천교원대학에서

덕천시 한복판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가에 우뚝 솟아있는 덕천교원대학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산골에 위치한 이 크지 않은 대학에도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교육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최근 몇달동안에 대학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있다. 수십년전에 일떠선 교사건물들이 외벽과 지붕을 비롯한 자기의 낡은 모습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신되여가고있으며 기숙사, 온실 등 보조건물들도 날로 변모되고있다. 대학출판소건설과 후방기지공사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다기능화된 강의실들과 강좌실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련속 보장되여 교육의 현대화가 비약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자연에네르기의 리용을 과학적으로 짜고든 결과 현대적인 교육설비운영과 강의에 필요한 전기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였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대학에서는 그토록 짧은 시일안에 많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는가.

학장 김영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재부를 얻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조건타발만 하면 그 무엇도 얻을것이 없지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면 못해낼 일이란 없음을 진리로 체득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낡은 사고방식과 사업태도가 70일전투와 더불어 흔적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학장의 눈빛에는 진정이 넘쳐흘렀다.

사실이 그랬다. 지난 시기 갓 창립된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몹시 뒤떨어져있었다.

일군들과 교직원들 누구나 이에 대해 걱정은 하면서도 혁신적인 대책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였다. 한것은 거기에 드는 많은 자재와 로력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속구구만을 앞세웠기때문이였다. 즉 남의 도움이 없이 방대한 일판을 벌려놓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다는 패배주의와 의존심이 대학의 전진을 크게 저애하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충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대학일군들과 교직원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태여난지 얼마 안되는 자그마한 대학에서 그쯤하면 되겠지하고 앉아뭉개던 사람들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대학당조직의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모든 교직원들이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11개의 강좌실들과 실험실습실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켰다. 카메라와 전자지시봉을 리용하여 다기능화된 교실들에 놓인 액정텔레비존을 전자칠판으로도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할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대의 변류기들을 리용하여 태양빛전지판에 의한 전력생산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사와 기숙사전기문제해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기숙사의 외부는 물론 70여개 호실들에 대한 개건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대동강의 맑은 물을 24시간 보장해줄수 있는 양수동력체계도 구축하였다.

온실안의 북쪽면을 따라 새로 건설한 물탕크들에서 메기를 키움으로써 랭기차단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되였으며 물고기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외장재를 비롯한 마감건재들을 펑펑 생산하면서 교사와 기숙사개건공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마음먹은대로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이 모든 성과들이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결실이라는것이다. 즉 대학에서 10여년동안 속구구만 앞세우면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방대한 사업들이 단 70일사이에 결속되였다.

10여년과 70일, 이것은 앉아뭉개는 식의 패배주의, 의존심이 머리속을 지배할 때와 자기 힘밖에 믿을것이 없다는 자강력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할 때 대학의 면모가 어떻게 하늘땅차이로 달라지는가를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70일전투를 시작한 때로부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는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계를 따라앞설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자면 아직 할 일이 너무도 많고많다.

하지만 자강력이야말로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가장 큰 재부라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철리로 받아들였기에 이들의 투쟁기세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대학의 면모도 그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경철

대오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

화대광산 초급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화대광산은 해마다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광물생산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다. 올해에도 광산은 상반년도생산계획을 80여일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 앞장에 광산이 자랑하는 초급일군들이 서있다.

우리 중대장

광산의 광부들치고 박영복중대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깊은 사색과 탐구로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내놓아 중대를 맡겨진 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넘쳐 수행하는 광산적인 모범중대로 만들고 수많은 기능공들을 키워낸 박영복동무.

그는 소형마광기를 개조하여 광석처리능력을 수십배로 높이였으며 막장의 구체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굴진방법들을 내놓아 광물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미있는 유모아와 재치있는 언변으로 중대의 화목을 도모하고 혁신에로 떠밀어주는 박영복동무를 가리켜 중대원들은 우리 중대장이라고 부르고있다.

완강한 실천가

어제날 혁명의 군복을 입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혁신의 앞장에서 소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소대장 최철남동무.

그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습득하여 발파구멍수를 줄이면서도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아 굴진속도를 배로 높이였다.

그는 소대원들을 불러일으켜 3개월분 예비부속품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광물생산을 내밀고있다.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왕성한 생산의욕을 지니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최철남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완강한 실천가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자랑많은 박식가

광산에 가면 캄캄한 막장안도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는 한 초급일군이 있다. 그가 바로 소대장 조원혁동무이다.

깊은 사색과 지칠줄 모르는 탐구, 불같은 정열로 과학기술지식을 부단히 쌓아가는 그는 광맥찾기, 굴진, 기계수리 등 그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데가 없다. 전동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압축기정상가동에 이바지하였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착암기를 개조하여 굴진속도를 훨씬 높이였다. 뽐프가 고장났을 때에는 솔선 맡아안고 새것과 다름없이 수리하였다.

그는 소대안에 과학기술열풍을 일으켜 자신뿐아니라 많은 소대원들을 착암명수들로 키웠다. 하기에 소대원들은 그를 가리켜 막히는데가 없는 박식가라고 자랑하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광산의 많은 초급일군들이 대오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 광물증산투쟁의 앞장에서 생산자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실험실습환경을 잘 꾸려놓고 교육사업을 적극 개선해나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독자의 편지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저의 아들 리훈은 어릴 때부터 심하게 앓다보니 한쪽귀로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어린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병을 고쳐주려고 애썼지만 깊어진 병은 좀처럼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저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유능한 의료일군들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였습니다. 듣던바그대로 아들의 상태를 진찰하고난 의료일군들은 현재로서는 치료가 좀 어렵겠지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품에 안겨있는 한 꼭 병을 고치게 될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는것이였습니다.

새 치료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전투가 계속되고 여러차례의 어려운 수술들이 진행되였습니다. 평범한 군인의 자식을 위해 깊은 밤에도 머리맡을 떠나지 않는 안정철, 김재국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안겨사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귀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여주었습니다.

하기에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크나큰 혜택속에 마침내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창조되였을 때 저는 온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함흥시 동흥산구역 서운1동
정현희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부회장 도착

제18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할 김대식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부회장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혁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스위스에 갔던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귀국

강하국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총회 제69차회의에 참가하고 3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헌신적복무로 수놓아가는 값높은 삶의 자욱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안남도인민위원회아래 평성려객뻐스주차장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근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

콩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주차장이며 운전사, 차장들을 위한 대기실, 려행자들을 위한 려객대기실 그리고 차수리기지며 편의봉사시설…

각지로 오고가는 수많은 려행자들가운데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물웅뎅이들이 웅크리고있은 늪지대에 이렇듯 훌륭한 봉사기지를 일떠세웠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더우기 이곳 종업원들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일떠세웠다고 하면 믿기 어려워하고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빈터우에 하나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던, 힘겨웠지만 보람찼던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군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주차장입구의 자그마한 콩크리트다리로부터 시작된다. 길이가 수십m인 그 다리는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발현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처음 주차장을 새로 건설할 부지를 돌아본 일군들도 종업원들도 아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질척한 늪지대에 무슨 수로 어떻게 1만여m²의 주차장을 일떠세운단 말인가.

감탕판한가운데 세워진 건정도를 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종업원들도 없지 않았다.

건설전투는 힘겨웠다. 모두가 질통과 맞들이로 감탕속에 돌을 처넣는 작업에 달라붙었다. 낮에 이어 밤에도 전지불을 비쳐가며 일손을 다그쳤지만 도무지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어느덧 11월경에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불어쳤다. 다음해 계속하자는 의견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 김성삼동무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각 도에 있는 주차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줄데 대하여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는소리만 하고 남의 도움만 바란다면 그 높으신 뜻을 언제 관철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며칠후 현장에서는 당보에 실린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에 대한 신문독보사업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 그들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 우리도 군인건설자들처럼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자. 등짐으로가 아니라 대형화물자동차로 막돌을 운반해오자. 우리의 힘으로 다리를 일떠세우자!

종업원들앞에서 한 김성삼동무의 불같은 호소는 그대로 대오앞에 내린 돌격구령이였다.

다리건설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종업원들이였지만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뛰여들었다. 감탕을 퍼낸 구뎅이에 고인물을 바께쯔로 퍼내고 련이어 휘틀을 댄 다음 거기에 몰탈을 쳐넣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구뎅이에 물이 출렁이고 나무휘틀이 둥둥 떠다니는것이 아닌가.

억이 막혀 손맥을 놓는 종업원도 있었다. 그때 김성삼동무가 앞장에서 그들을 고무했다.

《남들은 날바다를 가로막아 간석지를 얻어내고 사품치는 강을 막아 발전소를 일떠세우고있는데 물웅뎅이를 메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소.》

성큼 물속에 들어서는 그의 뒤를 따라 제대군관인 김병진동무와 박광일, 백홍식, 김연학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와— 하고 떨쳐나섰다.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들이 나왔다.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한편 중기계를 끌어다놓고 단번에 몇m³씩 몰탈을 넣자.

대담한 제기는 곧 실천에 옮겨졌다. 웅뎅이에 물이 차오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감탕이 밀려들면서 휘틀이 안쪽으로 휘여들었다. 종업원들은 저마다 휘틀에 어깨를 들이댔다.

《빨리 몰탈을 올려라.》

마가을의 차디찬 물도 뜨겁게 달아오른 이들의 불같은 열정을 식힐수 없었다. 그날의 투쟁모습은 오늘도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추억깊은 화폭으로 남아있다.

그해 12월초 완공된 콩크리트다리우로 막돌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가 통과할 때 종업원들은 기쁨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다리가 건설된 후 막돌을 실은 자동차들이 그칠새없이 오고갔다. 꾸역꾸역 피여오르는 감탕을 짓누르며 막돌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채석장의 돌산을 통채로 옮겨온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건설된 주차장으로는 다음해초부터 많은 뻐스들이 드나들었다.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대기실과 편의봉사시설을 찾는 려행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김성삼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드넓은 주차장을 콩크리트로 번듯하게 포장하자는것이였다. 사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면 돌과 흙으로 다진 주차장은 운전사들과 려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었던것이다. 김성삼동무는 이번에도 앞장에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쉴새없이 오고가는 려행자들을 위한 봉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몇개 구간으로 나누고 순차별로 포장공사를 밀고나갔다. 그 나날 종업원들의 옷은 늘 땀으로 젖어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먼저 포장을 한 구간에 뻐스가 도착했다. 산뜻한 바닥에 내려선 손님들이 웃고떠들며 저마다 주차장을 떠나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종업원이 몰탈과 흙먼지로 범벅된 자기의 장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는것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것을 사람들이 생각이나 할가요?》

그때 당세포위원장인 김완학동무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작업복이 땀에 더 절고 장화가 몇개 더 바닥나면 그때에 가서는 이곳에 번듯한 주차장이 일떠서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질게 아니요. 그런 멋을 우리 봉사자들이 아니면 누가 맛보겠소. 그렇지 않소?!》

이렇게 이들은 힘겨워도 어려워도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가슴에 안아보며 헌신적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갔다.

우리는 여기에 포장공사에 소모된 막대한 량의 건설용자재들의 수자를 적지 않는다. 그리고 대기실의 호실들에 갖추어진 하나하나의 비품마다에 어린 다심한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태여 하지 않으려고 한다.

평성천에 일떠선 콩크리트다리가 그리고 번듯하게 포장된 넓다란 주차장이 이들의 헌신적복무정신에 대하여 다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이 글을 마치며 김성삼동무의 한마디 말만은 적으려고 한다.

《우리 종업원들은 늘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군 합니다. 우리야 봉사자들이 아닙니까.》

특파기자 리혁철

히로시마에 펼쳐진 역겨운 가면극

저지른 범죄의 부인은 새로운 죄만을 덧쌓는것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선량한 인류를 우롱하고 공정한 력사를 기만하는 시정배들의 무지무도한 행태를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는것이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일본의 히로시마를 찾았다.

히로시마로 말하면 인류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에 의하여 약 26만명의 무고한 인명이 핵참화속에 무참히 스러져간 수난의 땅, 재난의 땅이다.

세계는 미국집권자로서는 처음으로 되는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행각에 이목을 집중하였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오바마가 핵참화를 들씌운 주범으로서 일본인민들과 인류앞에 공식사죄를 할것이며 이를 본받아 아베도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에 사로잡혀 군국주의재침의 길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펼쳐진 현실은 뭇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였다.

범행자로서의 죄의식은커녕 마치 유람이나 관광을 온것처럼 히로시마의 여기저기를 돌아치면서 《핵무기없는 세계》요, 《전쟁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요 하는따위의 겉발린 언어유희에만 집념한 오바마가 저주받을 불량배 그대로였다면 마치 하인마냥 시종 어두운 표정으로 따라다니며 저들이 《원자탄피해자》임을 크게 부각시켜보려고 궁상을 부린 아베 역시 간특하기 그지없는 장사치를 련상케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은 미제가 저지른 대살륙만행에 대한 사죄의 행각이 아니였으며 아베의 《초청식》주판놀음도 지난날의 대륙침략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위한것이 결코 아니였다.

과거의 피비린 행적을 통해 침략의 비계덩이를 놓고서는 추호의 타협을 모르는 숙명적인 두 괴수가 다른 장소도 아닌 히로시마에서 너털웃음을 터치며 《협조》와 《동맹》을 운운해댄 그 모든것은 겉과 속이 판판 다른 일종의 가면극에 불과하였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재침야망에 피눈이 된 일본반동국가의 두 괴수가 히로시마에서 보여준 역겨운 가면극의 진상에 대하여 론하려 한다.

이번 히로시마가면극의 주역은 오바마였다.

오바마는 면밀히 꾸며진 각본에 교묘한 변장술로 외상에 이르기까지 품을 들여 준비하고 이 무대에 나섰다고 말할수 있다.

이 행성에서 핵폭탄을 사용한 첫 핵전범국의 정체는 물론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를 제패하려는 흉악한 야망을 깊숙이 은폐해보려고 오바마는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귀맛좋은 타령을 늘어놓으며 별의별 술수와 기교를 다 부려댔다.

5월 27일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을 찾은 오바마는 《위령비》에 헌화를 하고 모여선 사람들앞에서 핵무기를 사용했던 유일한 국가인 미국으로서 핵무기제거노력에 앞장서야 할 《특별하고도 도의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해댔다.

이 발언을 음미해보면 미국이야말로 인류의 리익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이기때문에 세계최대의 핵국가로 되는것은 당연하다는것이다.

오바마는 계속하여 이번 일본방문을 통하여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대한 메쎄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였다고 뇌까려댔다.

이것 역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보유를 가로막고 오직 미국만이 핵독점국가로 되여야 한다는 참으로 파렴치한 강도적론리였다.

이 행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시효가 없는 핵전범자의 형틀을 지고있는 미국이 그 무슨 《특별한 의무와 도의적인 책임감》을 론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핵무기철폐와 제거》에 대하여 너스레를 떠는것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낼 일이다.

오바마가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낡아빠진 레코드나 다름없는 《핵무기없는 세계》라는 타령을 다시 늘어놓은것은 나름대로의 괴로운 고충때문이기도 하였다.

원래 이 구상 아닌 《구상》은 오바마가 집권초기에 직접 고안해내고 여론에 확산시킨 철저한 현실기만용광고판이였지만 《핵포기》를 바란다는 그것으로 노벨평화상을 거머쥐는 뜻밖의 횡재까지 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눈초리는 오바마의 집권과정을 지켜보고있었다.

임기 몇달을 남긴 현시점에서 핵포기는 말뿐이였고 지금까지 한것이 있다면 《핵없는 세계》가 아니라 집요하게 《핵있는 세계》야망을 추구한것이였다.

만약 오바마가 제정신이였다면 현재 공개된것만도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면서도 감히 《핵없는 세계》타령을 늘어놓지 못하였을것이다.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참관하고 원폭자료관도 방문하였지만 오바마는 이번 행각이 사죄를 위한것이 아니라 《추모를 위한 려행》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나섰다.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은 일본의 과거죄행에 면죄부를 던져주는것으로 군국주의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손쉽게 달성해보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핵참화를 들쓴 히로시마를 찾는것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그것으로 일본을 철저한 침략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나라》로 둔갑시켜 아베를 비롯한 극우익일본반동세력의 재침열기를 더욱 고취해주려고 《추모행각》을 단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인류를 눅거리 관객으로 여긴 이번 가면극에는 일본반동정부의 수상 아베 신조가 상대역으로 등장한것으로 하여 더욱 내외의 쓰디쓴 조소를 자아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 전기간 아베가 놀아댄 행태는 수난당한 《피해자》로 둔갑하여 지난 시기 아시아지역 나라들에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끼친 전쟁책임에서 벗어나고 군국주의부활을 적극 추진시켜보려는 야심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원래 간특성은 일본특유의 체질적속성이기도 하다.

아베가 이제 몇달후면 정계에서 사라져버릴 오바마를 히로시마에 끌어들이기 위해 그처럼 안달복달한것은 나름대로의 간교한 타산때문이였다.

그것은 원자탄사용국의 현직대통령을 히로시마에 행차시키는 경우 일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참화를 입은 참혹한 《피해자》로 완전히 둔갑시키고 전범국가의 전쟁책임과 보상이라는 무거운 족쇄도 벗어던질수 있었던것이다.

아베가 미국대통령의 일본행각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공식석상에 나타나 오바마의 집권기간 《치적》에 대해 요란스럽게 찬양해대고 일본행각 전기간 늘 감지덕지한 표정으로 《환영식》이요, 《만찬회》요 뭐요 하면서 분주탕을 피워댄것은 그때문이였다.

사실 아베가 제정신이였더라면 일본렬도에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미국의 괴수를 《초빙》한다는것은 생각조차 못하였을것이고 극진한 환대는 꿈도 꾸지 못하였을것이다.

미국의 괴수를 《상전》으로, 《은인》으로 섬기다못해 신주처럼 떠받들며 노복마냥 비굴하게 놀아댄것은 일본인민들에게 쓰라린 치욕을 두번다시 강요하는 죄악중의 대죄가 아닐수 없다.

지금도 대참사의 상처를 가시지 못하고있는 히로시마는 잔악무도한 날강도 미제의 죄행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말 못할 고통속에 숨져가고 산천도 피어나지 못하는 력사의 증견자, 인류의 성토장이다.

보통사람도 한생을 살아가자면 주견을 가지고 자주적대를 견지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정객인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미국에 대한 추종과 굴종이 뼈속까지 슴배여 정상적인 판별력도 마비된지 오랜 정치난쟁이가 바로 아베이다.

원래 아베는 일본의 야마도족인지, 아메리카의 앵글로색손족인지 그 인종과 출신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친미와 숭미가 머리털에 염색한것처럼 배여있는 희귀한 혼혈아나 다름없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악명높은 도죠내각의 상공대신으로 혈전분투한 《공로》로 처형의 올가미를 목에 걸었다가 미국에 의해 전후 일본수상이라는 턱대에까지 게바라오른 다음 평화헌법을 패전의 산물로 규정짓고 개헌을 평생과업으로 내세운 친미우익강경매파였던 외할애비 기시 노부스께와 외상으로 친미외교를 자기 신조로 삼았던 제 애비 아베 신따로의 더러운 체질을 유전적으로 넘겨받은자가 다름아닌 아베인것이다.

과거의 피비린 죄악을 사죄하기는커녕 도리여 《피해자》로 둔갑해보려고 온갖 권모술수에 매달린 아베야말로 전형적인 군국주의의 독사이고 재침마차의 마부라고 해야 적중할것이다.

이번 가면극에서는 《일미동맹》강화라는 지친 목소리가 때없이 튀여나왔다.

아베와 오바마는 이번 히로시마행각의 가장 큰 성과는 《일미동맹》강화의 《백년초석》과 《기둥》을 더 확고히 마련한데 있다고 떠들어댔다.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후 아베는 일미가 과거의 적대관계로부터 오늘날 《강력한 동맹관계》로 전환하였다는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고 흰소리를 쳐댔다.

미국상전의 세계제패실현의 돌격대, 전쟁머슴군의 멍에를 지고서라도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 일본주둔 미제침략군의 유지비용으로 자기 나라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까지 섬겨바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이고보면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베는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렬도에 대대적인 군국주의광풍을 일으켰다.

지난 5월 23일부터 서부태평양에서 벌려놓은 련합반잠전훈련때 일본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옛 《황군》의 《욱일승천기》를 함선들마다 게양하고 화약내짙은 전쟁연습에 광분해댄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교전권과 참전권을 가지고 이 행성의 임의의 장소에서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게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사실상의 전쟁악법인 《안전보장관련법》과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 해외파병을 위한 각종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를 취하는것으로 군국주의재침의 령역을 더욱 넓혀놓은것도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최근에는 형식상의 《비핵3원칙》이라는 말도 집어던지고 핵무장론이 공론화되고있는 형편이다.

얼마나 군국주의재침에 환장이 되였으면 지난 5월초에는 아베일당이 지구의 한쪽끝에까지 게바라가 일본이 《보통국가》라는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였겠는가.

여론들이 오바마와 아베가 히로시마에서의 《미일협력》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게 될것이므로 《력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입을 모아 줴쳐댄데 대해 정의를 매도하고 진리를 더럽힌 추물들의 추태라고 호되게 단죄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3일 도꾜에서 벌어진 대규모적인 시위가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을 반대하는 반미시위로 번져지고 일본각계가 오바마에게 원자탄피해자들의 말을 청취하고 핵무기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개시할것을 요구하는 요망서와 일본에 도사리고있는 모든 미제침략군과 군사기지를 철수할데 대한 각서를 들이대여 비지땀을 흘리게 한것은 일본주민들의 반미감정과 적대감, 증오심의 거세찬 분출이였다.

오죽하였으면 일본주민들이 도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놓고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을바에는 차라리 오지 말라.》, 《오바마는 흉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감행한 국가의 현대표자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들을 터쳤겠는가.

그들은 히로시마의 무고한 죽음이 바로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기때문에 자초한것이며 앞으로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전쟁내각으로 변모된 아베내각을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천륜을 어지럽히고 죄악에 찬 과거를 미화분식하는자는 기필코 준엄한 징벌을 받기마련이다.

히로시마가면극은 오바마와 아베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헐뜯은것으로 하여 더욱 꼴불견스러운 광대극으로 되였다.

오바마는 이번 히로시마행각을 통하여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공화국을 제2의 히로시마로 만드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간악한 핵전쟁흉계도 꺼리낌없이 드러내보였다.

25일 첫 일본행각일정으로 오바마는 아베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개발과 전파와 같은 《도발》을 하고있으며 《핵무기없는 세계》실현에서 《최대의 장애》이고 동북아시아지역과 미국 그리고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악의에 차 헐뜯어댔다.

27일에는 또다시 《북조선이 큰 걱정거리》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보였다.

만약 오바마의 사유기능이 정상이라면 우리를 비방중상할것이 아니라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공화국부터 찾아와 허리굽혀 사죄하여야 마땅할것이다.

《셔먼》호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여 가장 야만적인 《초강도제재》와 전대미문의 군사적압살공세, 천인공노할 《제도붕괴》로 함축된 대조선압살책동에 이르는 오늘까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범죄는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지난 세기 1950년대 조선전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여 우리 인민에게 끼친 상상하지 못할 그 피해상을 과연 히로시마의 참사에 비할수 있겠는가.

날강도 미국이 각종 핵전략폭격기 및 스텔스전투기와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타격단, 핵동력잠수함 《브레머튼》호를 비롯한 《6대전략자산》을 총투입하여 조선반도를 사실상의 핵전쟁도가니속에 몰아넣은것은 불과 한달전의 일이다.

오바마가 핵폭탄을 투하한 곳에서 우리 공화국을 걸고들면서 핵위협과 공갈을 합리화해댄것은 앞으로 핵전쟁을 불사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흉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아베가 오바마와 쌍피리를 불어대며 《북핵위협》을 구실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을 위한 첫 과녁으로 우리 공화국을 선정하고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기어이 타고앉아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는 악랄한 기도를 가리워보려 한것은 그야말로 전쟁광신자의 더러운 행태가 아닐수 없다.

과거는 결코 영원히 지나간 세월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쳐주는 거울이며 래일을 밝히는 등불이다.

력사를 바로 대하고 정의와 진리를 지향할 때만이 참다운 미래를 가질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이 핵위협과 핵공갈에 매달리며 핵전쟁의 길로 줄달음칠수록,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할 대신 회피와 모면의 서푼짜리 요술을 부려댈수록 차례질것은 처절한 최후종말뿐이다.

필승불패의 핵강국으로 그 위용이 당당한 우리 공화국은 미일반동들을 비롯한 불순적대분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자주화된 인류의 리상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노도쳐나갈것이다.

오바마와 아베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히로시마는 핵범죄국가의 죄행을 덮어주고 핵독점지배주의를 고취하는 장소로 될수 없으며 군국주의마차에 박차를 가하여 대륙침략의 길로 나가는 통행증으로는 더욱 될수 없다.

력사의 갈피에 히로시마가면극으로 락인된 오바마와 아베의 추태는 두고두고 만사람의 저주와 조소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군사론평원

세상물정도 모르는 저능아의 추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노력에 극히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 앞장에 다름아닌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쓴 홍용표가 서있다.

며칠전 홍용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특강이라는데서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느니 뭐니 하며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의 변화를 끌어내야 할때》이라는 고약한 수작을 내뱉았다. 다음날에 있은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는 우리의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을 《핵개발책임을 덮고 넘어가려는 면피용》으로 헐뜯으면서 지금은 대화보다 《변화를 이끌 시점》이라고 떠벌이였다.

이자의 구린 입에서는 이런 망발들이 매일같이 오물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홍용표가 줴치고있는 대결망언들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현실감각과 판단력도 없는 대결광신자의 가소로운 넋두리이다.

뿌리깊은 나무는 가물을 타지 않는 법이다.

선군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에는 적대세력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통하지 않는다. 하기에 미국과 주변나라들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까지 대화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전 통일부 장관들은 반공화국《제재》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현 상황의 해소를 주장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용표가 좋다 나서서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제재》와 《변화》니 하는 외마디말만 줴치고있는것은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상실한 천치, 바보로서의 이자의 사고수준을 잘 보여준다.

홍용표가 우리의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에 대해 그 무슨 《면피용》이니 뭐니 하고 악의에 차서 걸고들면서 《핵개발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는데 그것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 저능아의 본색을 드러낸것이다.

똑똑하지 못한자는 흔히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고 없으면서도 있는체 하며 못난 주제에 잘난체 한다. 홍용표가 바로 그렇다.

지금껏 광란적인 북침핵전쟁도발책동으로 우리를 그에 대응한 핵억제력보유의 길로 떠민것도, 우리에게 핵능력고도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해준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세와 핵패권에 충분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런데도 남조선통일부 장관이라는자는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근원과 과정도 모르고 《북의 핵개발책임》이니 뭐니 하는 뚱딴지같은 나발을 불어대며 반공화국압살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대화제안에 담겨진 깊은 의도도 생각해보지 않고 또 저들의 운명에 어떤 망조가 비낀줄도 모르며 헤덤비는 무지몽매한자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암둔하고 리성없는자가 남조선통일부 장관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홍용표가 요즘 주린 개마냥 여기저기를 싸다니며 《제재》를 통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악담질을 일삼고있는것은 역도야말로 극악한 대결미치광이, 초전광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송사리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랭전적사고와 대결적본능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얼간망둥이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있으니 북남관계가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거듭할수밖에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만을 불러오는 재앙단지인 홍용표를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들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홍용표가 그 암둔한 머리로 고안해낸 고약한 망발들을 줴쳐대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북남관계개선을 지향해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공명정당한 제안들을 끝내 거역하는 경우 행운의 기회를 스스로 차던지는것으로 하여 어떤 비극적후과가 차례지게 되겠는가에 대해 명철하게 판단하며 심사숙고하여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심 철 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의 무지막지한 군사적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를 28일과 2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모든 남조선함정들에 대하여 경고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는 통첩장을 남조선당국에 보냈다.

통첩장은 남조선함정들이 조선령해에 침범하여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오는 아군해군 련락선에 마구 사격을 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남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정세격화를 위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무모한 군사적도발에로 부추긴 배후조종자들은 온 조선민족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고 통첩장은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남조선당국에 보낸 통첩장에서 이번에 감행된 엄중한 군사적망동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계획적인 흉계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대화요구에 남조선은 무모한 군사적대결로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만약 남조선이 조선의 자위적인 보복타격에 도전해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련속적인 대응타격이 뒤따르게 될것이라고 총참모부 통첩장은 경고하였다.

레바논신문 《나하르네트 뉴스데스크》도 남조선군 함정들이 조선인민군 해군 련락선에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통첩장에서 조선의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라도 침범하는 모든 남조선군 함정들에 대하여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총참모부는 통첩장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들이 조선민족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메르싼뜨》, 인터네트통신들인 꼬레스뽄덴뜨, 레그눔, 에르베까, 중국의 인민망, 환구망, 중국보도망, 뛰르끼예신문 《데일리 싸바흐》,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조선 남조선군에 조준타격할것이라고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을 요지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를 비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3일 군사령관들과의 협의회에서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최근 로므니아령토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한 구성요소인 전파탐지소가 설치된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로씨야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있으며 그것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싸일방위체계전개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가 한두번만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로씨야의 협력제의를 사실상 무시하였다고 까밝혔다. 로씨야는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자기의 무력건설계획들을 부단히 수정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12일 로므니아의 데베쎌루에서는 미국의 《이지스》지상미싸일방위체계 가동식이 벌어졌다. 미싸일방위체계의 기지용으로 175ha의 부지가 할당되였으며 여기에 전파탐지소와 미싸일방위체계조정쎈터 등이 설치되였다고 한다.

미군의 무인기공습을 규탄

파키스탄륙군참모장이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만나 미군의 무인기공습은 주권침해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얼마전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의 붉은선으로 간주되여온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인기공습을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미국의 공습만행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에 역효과를 미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바마의 히로시마행각을 반대하여 집회

중국 홍콩에서 27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일본 히로시마행각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홍콩주재 일본총령사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오바마는 히로시마에 가지 말라!》라는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미국대통령의 철면피한 행각놀음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감행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죄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월간국제정세개관

5월의 국제정세가 새겨주는 력사의 진리

5월의 마지막날이 흐르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으로 국제적정의가 유린당하고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혼란과 류혈참극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고있을 때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승리자의 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통해 주체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온 영광스러운 년대기들을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인류는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인 우리 공화국을 다시한번 높이 우러렀다. 5월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강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력사의 분수령, 최후승리의 진군길에 올랐다.

한편 력사의 반동세력의 원흉인 미국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과 내정간섭, 정부전복음모에 매여달렸다.

미국은 지난 3월과 4월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속에 몰아넣은것으로도 모자라 지난 25일부터 조선남해에서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련합잠수함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포함한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여러 나라들에서 침략적인 군사작전들을 계속 벌려놓는 한편 《자유》,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자주적인 나라 정부들을 중상모해하고 제재소동에 매달렸다.

미국의 이러한 지배주의적처사는 국제사회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왔다.

얼마전 베네수엘라외무상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내부불순세력들을 규합하여 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정부를 제거하기 위해 이 나라의 반정부세력들을 정부전복에로 부추기는 한편 마두로대통령을 비난하는 망설을 퍼뜨리고있다.

또한 정찰기까지 동원하여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탐행위에 광분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 공보, 외교분야에서 세계적인 주권침해행위를 일삼고있으며 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베네수엘라를 비방중상하는 선전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란, 꾸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위협공갈과 침략책동, 정치, 군사적간섭과 경제제재소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지배주의세력의 그 어떤 강권과 전횡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대를 견지해나가는것은 오늘날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우간다에서 있은 대통령취임식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지난 12일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였다. 재선된 무쎄베니대통령은 각국 대표들이 참가한 취임식에서 수단대통령 바쉬르를 소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서방의 정치적부속물로 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러자 심기가 뒤틀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표들은 취임식장에서 퇴장해버렸다.

바쉬르로 말하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부당한 구실밑에 체포대상으로 삼은 인물이다. 이러한 그를 체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난했으니 그것은 곧 국제형사재판소를 사촉하여 수단대통령을 제거해보려던 서방나라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였다. 결국 수단대통령은 당당히 우간다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아프리카나라들은 2013년 10월에 있은 아프리카동맹수뇌자회의 특별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처사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올해 1월말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된 제2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할것을 결정하였다. 우간다대통령취임식은 그들의 결심을 증명해보이는 하나의 계기였다. 지배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세계의 곳곳에서 완강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달에 수리아문제,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문제,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문제 등을 둘러싸고 로미사이의 대립이 지속된것이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 수리아문제와 관련하여 로미사이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기되여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러저러한 절충이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리해관계의 차이로 하여 갈등은 여전히 크다. 수리아에서 테로분자들의 군사활동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로씨야는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로므니아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배비를 완료한것, 나토에 로씨야주변 나라들을 계속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 등과 관련하여서도 로씨야의 립장은 강경하다.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은 기자들에게 유럽미싸일방위체계가 로씨야에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달에 중동지역정세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제의 교활한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력사적으로 존재해온 종교적갈등과 전략적리해관계의 모순이 악화되여 지역내 나라들사이의 마찰이 더욱 표면화되였다.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정책으로 인한 충돌도 격화되였다. 이스라엘은 이달에 들어와 여러차례에 걸쳐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감행하고 《안전장벽》구축을 다그치는 등 강점정책에 매달렸다.

중동의 험악한 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피난의 길에 오르게 하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강권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평화와 안전,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절대로 인류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는다. 오직 자주와 정의를 위해 싸울때만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

5월의 국제정세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혁

ㄱ-61088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